

2010.07.26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인도, 농업의 중요성 강조

## 1. Financial Times (2010.07.20) 주요 내용

- 인도의 4개년 경제개발 계획 회의에서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성장률을 4%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논의.
  - 찬드라세카르(Chandrasekhar) 내각장관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농업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발언.
- 인도가 10%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개선이 필요함.
  - 인도는 1/4분기에 8.6% 경제성장을 이룰 정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임.
  - 인도는 올해 8.5%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과 세계 경제 상황이 인도의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함.
-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보다는 농업 개혁이 더욱 필수적임.
  - 아쇼크 차울라(Ashok Chawla) 재무장관은 농업분야 4%, 산업분야 12%, 서비스분야 10.5% 성장세가 조화를 이뤄 전체 경제성장률을 10%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언.
  - 국내총생산의 40%까지 투자하고 저축률을 35%에서 37~38%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함.
  - 심각한 가뭄으로 농업 생산이 위축되어 있는 인도 동부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함.

## 2. 시사점

- 경제성장률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도가 농업분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,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.

## □ 영국 인터넷 식료품 비즈니스의 과제

## 1. Economist (2010.07.17) 주요 내용

- 영국의 많은 국민들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식료품점이 비교적 인기가 있지만 수익성은 부족한 상태.
  - 올해 영국 식료품 시장에서 인터넷 주문이 거의 5%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14년에는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  - 오카도의 판매량은 2007년 이후 21% 성장하였음.

오카도(Ocado)는 슈퍼마켓 25개 규모로 16km의 컨베이어 벨트와 자동화된 기계로 수천 개의 작은 바구니에 수백만 개의 상품과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화물차로 매일 영국 전역의 가정에 배달함.

- <높은 비용체계> 오카도 등 인터넷 식료품 비즈니스는 아직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.
  - 애널리스트들은 영국 가정에 식료품을 배달하는데 20~25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인구밀도가 더 낮은 미국과 같은 지역은 비용이 더욱 상승할 것임.
  - 현재 소비자들이 스스로 상점에 가기 위해 많은 비용을 감내하면서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을 꺼려하는 주된 이유는 높은 배달비용과 상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때문.
- <배송의 어려움> 판매상품의 특성상 부패하기 쉬운 냉동이나 냉장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특정한 시간에 배송되어야하는 문제도 존재.
  -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주초나 주말에 전달받기 원하는

경우가 많아서 주문이 몰리게 되는 어려움까지 가중.

- <향후 과제> 식료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비즈니스 모델 필요.

## 2. 시사점

- 영국의 인터넷 식료품 비즈니스의 향후 발전과제(소비자 수요 부응과 물류비 절감)는 우리 농산물의 인터넷 판매에 시사하는 바가 큼.